

살랑 살랑~ 빛고를 '메세나 훈풍'

(기업 문화·예술 지원)

지난 3일 조선대병원에서는 아름다운 실내악 선율이 울려 퍼졌다. 광주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연주하는 음악을 들으며 환자와 가족, 의료진들은 모처럼 마음의 휴식을 가졌다.

광주은행이 주최한 이날 음악회에서 광주 필하모닉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음악들을 들려줬다.

아직 서울이나 울산 등 다른 지역에 비하면 미미한 편이지만 지역에도 메세나 바람이 조금씩 불고 있다.

올해로 창립 40주년을 맞는 광주은행이 진행하는 '광주은행 사랑나눔 음악회'는 광주와 전남지역 병원 등에서 올 한해 동안 15차례 진행된다.

광주은행의 경우 지금까지 각종 행사 등에 재정적인 후원을 하고 매년 가을을 악화라는 이름으로 공연 후원금을 선정, 고객들에게 초대권을 배부하는 했지만 은행측에서 직접 장기간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건 처음이다.

오는 24일에는 목포 중앙병원에서 음악회가 열릴 예정이며 전남대병원, 광주 보훈병원, 여천제일병원, 하남성심병원, 순천성가들로 병원에서 공연이 예정돼 있다. 그 밖에 가정의 달인 5월과 12월에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음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사랑나눔음악회는 지역 민간 연주단체인 광주필하모닉과 함께 진행한다. 광주필하모닉은 문화를 통한 사랑나눔을 함께 실천할 수 있는 데다 광주은행측과 지속적인 유대 관계를 맺을 수 있어 이번 음악회를 반기고 있다.

광주은행은 올해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

에도 사업을 계속할 지 결정할 예정이다.

오는 19일 정식 개원하는 광주시 북구 일곡동의 일곡양지병원(병원장 김석재)은 4층 건물 전체를 갤러리로 꾸미고 작가들의 초대전을 진행 중이다. 기존의 병원들이 그림 몇 점을 거는 경우는 많았지만 병동 전체를 갤러리로 꾸민 경우는 드물다.

병원측이 갤러리를 꾸민 이유는 아프다는 이유로 다양한 문화적 환경에 접근할 기회가 제한돼 있는 환자들에게 편안한 마음으로 문화에 다가갈 수 있도록 배려

하기 위해서다.

일곡양지병원은 재활·치매·정신질환 등을 치료하는 전문병원답게 각층마다 특색 있는 그림을 전시 중이다. 4층 정신과 병동은 편안하고 안정된 느낌의 그림을 전시했고, 2층 재활센터에서는 활기차고 역동적인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가나피엔엘은 앞으로 나도 어린이들을 초청, 디자인센터 체험과 방문 등을 진행하는 등 각자의 의미있는 발걸음을 계속 할 예정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지역에도 메세나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병원 전체를 갤러리로 꾸민 일곡양지병원에서 환자가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

/위지랑기자 jrwi@kwangju.co.kr

5·18 다룬 '짬뽕' 3관왕

최우수 작품상·연출상·신인남자연기상 차지
광주연극제 막내래...연기상 윤희철·류지영씨



윤희철씨



류지영씨

광주 5·18 민중항쟁을 소재로 한 푸른연극마을의 '짬뽕'이 제 22회 광주연극제에서 최우수 작품상 등 3관왕을 차지했다.

지난 9~13일 광주문화회관 소극장에서 5개팀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광주연극제에서 '짬뽕'은 최우수작품상과 함께 연출상(오성완), 신인남자연기상(김현수)을 수상했다.

연기상은 '봄이 오면 산에 들에'에서 달래 역을 맡은 '얼·아리'의 류지영씨와 극단 'DIC'의 '행복한 가족'에서 활

배로 출연한 윤희철씨가 차지했다. 류씨는 1991년과 1992년, 1997년에 이어 10여년만에 다시 연기상을 차지했으며 윤씨도 1993년과 2006년에 이어 3번째로 영예를 안았다. 그밖에 유괴사건의 '위대한 가족'은 신인 여자연기상(신은정)과 무대미술상을 수상했다.

'짬뽕'은 1980년 중국집 총대원인에서 꿈을 키우는 가난한 소시민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광주 5·18에 대해 이야기하는 작품. 윤정환씨의 희곡을 오성완씨가 3분의 1 정도 각색했으며 원작

에 비해 '공주'의 이야기와 총대원 가족들의 '꿈'이 좀 더 많이 삽입됐다. '짬뽕'은 수정·보완 과정을 거쳐 오는 5월말부터 인천에서 열리는 제24회 전국연극제에 광주 대표로 참여하게 된다.

심사를 맡은 표원섭(청주대 연극과) 교수는 "인간의 진실에 다룬 다양한 작품들이 눈에 띄어 반가웠다"며 "무대 메카니즘의 활용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극단이 함께 고민하고 지역작가의 창작 희곡 초연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

무등·사직·산수도서관 문화학교 수강생 모집

광주시립도서관은 오는 30일까지 무등·사직·산수도서관의 '2008년도 제2기 문화학교' 수강생을 모집한다.

제2기 문화학교는 오는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간 200명을 대상으로 3개 도서관에서 모두 16개 과정을 무료로 운영한다.

광주시립도서관 조영주 관장은 "지역 문화센터로서 도서관의 기능을 높이고 열린도서관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강좌를 마련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문의 및 접수는 각 도서관 사무실(무등 062-264-9857, 사직 062-613-5348, 산수 062-232-6694)이나 시립도서관 홈페이지(www.citylib.gwangju.kr) '문화강좌'에서 하면 된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위작과 도난으로 들여다 본 미술계



미술평론가 이연식씨 '위작과 도난의 미술사' 펴내

미술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위작 논란과 미술품 도난 사건이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는 45억원의 거액에 팔린 박수근의 작품 '빨래터'의 가짜 논란이 있었고, 지난 2월에는 스위스 취리히 에밀 뷔를르 박물관에서 시가 1억6천400만달러(1천550억원)에 이르는 명작들을 갈탈 당했다. 무장 강도들이 '빨간 쪽을 입은 소년'(폴 세잔·1888년) '레피 백작과 그의 딸들'(에드가르 드가·1871년), '꽃이 핀 밤나무'(빈센트 반 고흐·1890년), '베퇴유 부근의 양귀비'(클로드 모네·1879년) 등 세상에 잘 알려진 그림을 가로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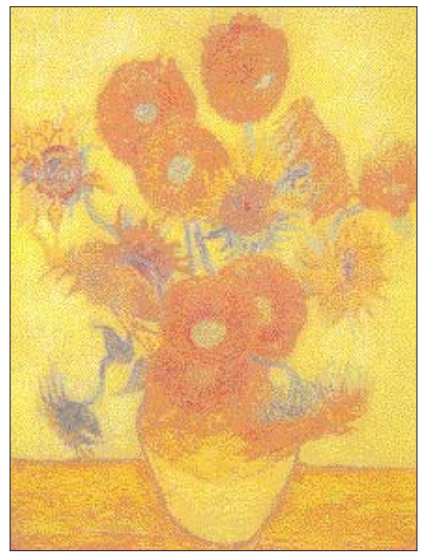
서울에서 활동 중인 광주 출신 미술평론가 이연식(37)씨가 '위작과 도난의 미술사'를 출간했다.

저자는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위작·도난 사건을 흥미진진한 소설처럼 풀어냈다. 또 위작과 도난이라는 불운한 미술사를 통해 미술계의 이면을 들여다 볼 수 있도록 다양한 사건을 재구성했다.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로 유명한 네덜란드 화가 요하네스 베르메르(1632~1675)는 작품을 숨하게 도난 당하고, 위작의 대상이 된 대표적인 작가였다.

1945년에 현대의 위작 전문가인 메렌은 베르메르의 '그리스도와 간음한 여인'을 배간 뒤 나치의 괴뢰 장군에게 거액 받고 팔았다. 또 아일랜드 독립 투쟁가인 IRA는 러스보로 하우스를 습격해 베르메르의 '편지를 쓰는 여인과 하녀'를 가로챈다. 위작과 도난에 시달렸던 베르메르의 작품은 전 세계에 32점 밖에 남아

있지 않다. 이밖에 도둑맞은 그림이 일본으로 흘러들어 간 뒤 감쪽같이 사라져 버리는 과정 등도 흥미롭다. 진품과 위작을 나란히 배치해 이해를 돕고, 만화처럼 재미있는 삽화를 곁들였다.



1987년 크리스티 경매에서 3천990만달러에 낙찰된 뒤 위작 논란에 휩싸였던 빈센트 반 고흐의 '해바라기'.

한편 이씨는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서양화 전공),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이론과 전문가 과정을 졸업했으며 영화와 소설에 등장하는 미술 '통념'을 파헤친 '미술영화 거들떠 보고서' (지안)를 출간한 바 있다. 서예가 학정 이돈홍씨의 장남이기도 하다.

<한길아트·1만5천원>
/오광희기자 kroh@kwangju.co.kr

서점가에 '어린왕자'가 사라졌네

상표권 분쟁 휘말려 반품

프랑스 소설가 생텍쥐페리의 작품 '어린왕자'가 상표권 분쟁에 휘말려 서점가에서 모습을 감추고 있다.

14일 교보문고는 "지난달 '어린왕자'의 저작권을 소유한 생텍쥐페리 유족재단 SOGEX와 계약한 디자인문구업체 '아르데코 7321'의 문제제기에 따른 것으로, 아르데코 7321은 이 삽화들을 이용해 수첩과 다이어리 등 각종 문구를 제작·판매 중이다. 교보문고는 "법적인 분쟁절차와는 별도로 통보서 자체만으로도 일정한 법률적 효력을 지닌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쓴 제목과 'Le Petit Prince'라고 필기체 프랑스로 쓴 제목, 어린왕자가 흑색에서 서서 별을 바라보고 있는 삽화, 어린왕자가 초록색 땅토를 밟고 있는 삽화, 어린왕자가 초록색 땅토를 밟고 있는 삽화 등 4종이다.

이런 일은 지난해 10월 국내에서 이 상표권들을 최장 2016년까지 독점 사용하기로 SOGEX사와 계약한 디자인문구업체 '아르데코 7321'의 문제제기에 따른 것으로, 아르데코 7321은 이 삽화들을 이용해 수첩과 다이어리 등 각종 문구를 제작·판매 중이다. 교보문고는 "법적인 분쟁절차와는 별도로 통보서 자체만으로도 일정한 법률적 효력을 지닌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Happy Time 영화안내

메가박스 구.현대아파트가거리 ☎061-544-0600 1관 삼국지 (154) 2관 GP506 (184) 3관 천일의스캔들 (154) 4관 어웨이크 (154) 5관 연의황후 (154) 6관 내가 숨쉬는 공기 (184) 7관 도레미파솔라시도 (124) 8관 나의특별한사랑이야기 (154) 9관 테이큰 (184)	엔터 시네마 충정로 5가 (전화예약) 228-2700 1관 추격자 (184) 2관 그리스스토리 (124) 3관 도레미파솔라시도 (124) 4관 에메이징그레이스 (전세) 5관 마이뉴파트너 (154) 6관 10,000 BC (154) 7관 속명 (184)	콜롬버스 시네마 상무점 (상무점과 이마트 사이) 해남점 (무역화관역) 1관 도레미파솔라시도 (124) 2관 나의특별한 사랑이야기 (154) 3관 10,000BC (154) / 속명 / 추격자 (184) 4관 연의 황후 (154) 5관 내가 숨쉬는 공기 (184) 6관 천일의 스캔들 (154) 7관 GP506 (184) 8관 버킷리스트 (124) 9관 테이큰 (184) 10관 삼국지-웅의부활 (154)	씨너스 전대 북구건조소 건너편 ☎ 511-1000 1관 테이큰 (184) 2관 내가 숨쉬는 공기 (184) 3관 삼국지-웅의부활 (154) 4관 도레미파솔라시도 (124) / 추격자 (184) 5관 어웨이크 (154) / 스텝업2 (124) 6관 GP506 (184) 7관 연의 황후 (154)	하미 시네마 진대후문 하미포텍스 ☎ 267-7777 1관 경축 우리사랑 (154) 2관 10,000BC (154) 3관 어웨이크 (154) 4관 속명 (184) 5관 스텝업2 (124) / 추격자 (184) 6관 천일의 스캔들 (154) 7관 테이큰 (184) 8관 연의 황후 (154) 9관 GP506 (184) 10관 삼국지-웅의부활 (154)	무등극장 충정로 1가 ☎ 232-9106 1관 어웨이크 (154) 2관 도레미파솔라시도 (124) 3관 GP506 (184) 4관 연의 황후 (154) 5관 삼국지-웅의부활 (154) 6관 테이큰 (184) 7관 추격자 (184) 8관 속명 (184) / 스텝업2 (154) 9관 천일의 스캔들 (154)	제일시네마 충정로 3가 ☎ARS 전화예약 227-1960 ☎ 1관 GP506 (184) 2관 연의 황후 (154) 3관 도레미파솔라시도 (124) / 어웨이크 (154) 4관 테이큰 (184) 5관 삼국지 (154) 6관 추격자 (184) / 속명 (184)
--	---	---	---	--	---	--

강주점 무료표본 행사 종료했습니다.
 * 이프루 주차장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 관람과 함께) * 2시간 30분 초과시 정액요금 부과

www.entercinema.co.kr
 * 낮고편안 국내 최대 주차장 300대 * * 코로 심야영영 *
 * 온 가족의 편안한 문화공간 *

ARS 전후예예 1544-0070
 * 무료주차 3시간 * 이동통신사 할인혜택 * 세스노직 시무(모집)사-오(취)사

ARS 전후예예 1588-9101
 * 500여대 넓은 주차장(3시간 무료) * 385명 객실 심야 * 아통 통신사 & OK 캐쉬백 카드 할인 혜택 * 하이 수영장 288-5757 * 하이 볼링장 282-0825 * 하이 골프장 251-5060 * 영빈관 예약 261-2000

ARS 전후예예 227-1960
 * 무료주차 3시간 (광주 세무소 옆 호남타워주차장) 단, 입장권 구매 고객에 한함